도, 우주항공산업 활성화 포럼 개최

김관영 도지사, 부지사 · 실국장 · 출연기관장 · 직원 70여명과 함께 열띤토론 · 학습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 ‘우주항공산업 미래와 발전 전략’ 특강

김관영 도지사가 우주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과 토론 등 직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는 7일 ‘9월 1차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도청 중회의실에서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과 관련 출연기관장 및 직원 70여 명과 함께 ‘우주항공산업 미래와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김민석 부회장 특강,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최근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 등 첨단산업이자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인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통한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이러한 흐름을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김민석 부회장은 ‘우주항공산업 미래와 발전 전략’ 주제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김 부회장은 “우주항공산업은 국가위상, 군사안보, 방산수출과 관련된 국가전략 산업이며,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기술집약 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우주항공산업은 국내의 경우 그 중요성에 비해 국가중심기술개발로 민간산업 생태계는 미숙 단계이며,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한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민간 주도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항공산업 고도화를 추진하여 항공기술 패러다임 전환 준비와 글로벌 신시장 선점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 시간에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여건, 산업 전환기에 필요한 지자체의 역할 등 다양한 내용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매월 2회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해 인공지능, 바이오, 신산업, 일자리·경제, 농생명, 문화·관광 기타 분야별 최신 이슈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직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함께 혁신 위한 ‘도정혁신자문단’ 출범… 도내 전문가 25명으로 구성

이광철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 등 위촉… 제도 개선 자문, 도민 생활 밀접 현안에 대한 여론 청취 · 전달 역할 기대

전라북도
전라북도 도정혁신 자문단 출범식
2023. 9. 7.(목) 13:30 전라북도청 중회의실2

7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 ‘도정혁신자문단’ 출범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자문단이 위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가 ‘미래기획단’, ‘새로운 전북 자문단’에 이어 세 번째 정책 자문기구로 ‘도정혁신자문단’을 위촉해 민선8기 도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7일 도청에서 이광철 단장 등 도내 각 분야별 전문가 25명을 ‘도정혁신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도내 학계, 법조계, 기업·경제, 문화,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된 ‘도정혁신자문단’은 앞으로 2년간 도정의 변화·쇄신·혁신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과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여론 청취·전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도정혁신자문단이 도민 가까이에서 도정의 변화와 쇄신, 혁신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며, “도정의 비전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중 ‘함께 혁신’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가 돼달라”고 말했다.

위촉식 이후 이성호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도정혁신자문단 운영계획(안)’과 ‘도정현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자문단의 추진 방향에 대한 토의 및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북도는 정책 자문기구로 ‘미래기획단’과 ‘새로운 전북 자문단’을 구성해 각각 미래 성장동력 설계,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 등으로 도정에 추진동력을 얻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추석명절 맞아 벌초 · 묘지관리 대행 서비스 실시

13개 시군 산림조합에 전화 · 방문 · 인터넷 등 신청

전북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출향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림조합 벌초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은 산림분야 전문기관으로서 벌초, 잔디 보수, 훼손지 복구와 묘지조경 등 묘지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위성항법장치(GPS) 및 묘지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실묘(失墓)를 방지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벌초 도우미 서비스는 묘지가 소재한 각 지역 산림조합에 전화 또는 인터넷(http://iforest.nfcf.or.kr), 모바일(m.nfcf.or.kr)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료는 현지 여건을 반영한 각 조합별 자체 기준으로 기준 단가를 책정했으며 면적, 거리, 묘지의 수, 주변여건 등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산림조합원(지역 불문)의 경우 10%, 3년 이상 연속 벌초 의뢰할 경우 5%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도내 산림조합 벌초도우미 서비스 추진실적은 2019년 4,036건, 2020년 5,394건, 2021년 6,074건, 2022년 6,301건으로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접수 건은 추석 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전주-완주, 상생사업 지속 발굴

전북도와 8차 협약… 지역사랑상품권 상호유통

만경강 완주 · 전주 상생투어 공동참여 등 추진 약속

전주·완주 상생협력사
7(목) 17:00~
전북

7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8차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협약식을 갖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 상생의 보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지난 6월말 7차 협약이후 두 달여만에 두 가지 사업을 추가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도와 함께 양 자치단체가 발굴해 추진하기로 한 상생방안은 모두 20건으로 늘어났다.

전북도는 7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8차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사업은 먼저 ‘전주·완주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 추진’이다.

생활권과 상권이 밀접한 전주-완주 지역사랑상품권의 상호유통 추진을 통해 양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시·군은 관련규정 정비 및 홍보일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사업은, ‘만경강 완주·전주 상생투어(청년축제, 파크골프대회)’ 공동 참여다.

오는 9월 22일에 개최되는 만경강 청년축제 공동참여를 통해 양 지역 청년들이 함께 교류하는 화합·소통의 장 마련으로 청년문화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 11월 중순에 개최되는 만경강 파크골프대회에 공동으로 참여해 전국단위 관광객을 끌어들여 전주·완주 양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합심하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47억 확보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도 축산 악취개선사업’ 공모 결과 4개 시·군(군산, 정읍, 남원, 고창)이 선정돼 총사업비 47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도는 전국 33개 시·군 총사업비 378억원 중 12.4%인 47억원을 확보했고, 시군별로는 고창 21억원, 정읍 14억원, 남원 5억원, 군산 7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양돈농가 정화방류시설의 수질기준이 법적 기준보다 매우 낮게 나오는 시설을 지원해 양돈분뇨의 퇴비·액비화 이외의 처리방식 개선으로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1면에 이어…

23일 개막 항저우 AG 전북 39명 출전

소프트테니스에서는 윤형욱과 김병국이 레슬링에서는 신병철과 이한빛이 나서고 유도는 이성호, 양궁에서는 오유현이 각각 출전한다.

펜싱에서는 도쿄올림픽 펜싱 남자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권영준이 금빛 찌르기에 도전한다.

올해에만 국제대회에서 4차례 우승을 차지하고 최근 덴마크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는 등 절정의 경기력을 뽐내고 있는 공희용도 금빛 스매싱에 도전한다.

조정에서는 정혜정과 채세현, 박지윤이 요트에서는 이영은이 출전한다.

세팍타크로 종목에서는 박성경이 철인3종에는 김지환과 정혜림이 나선다.

자전거 종목에는 박상홍과 김유로, 나아름, 이주희, 이은희, 송민지가 힘찬 페달을 밟게 되며 축구에는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소속인 백승호와 김정훈, 박진섭, 송민규가 ‘아시아 호랑이’를 다시금 증명하게 된다.

전북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한국 체육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 전북 선수들을 비롯해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에만 매진, 구슬땀을 흘렸다”며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2023년 2학기 전주교육대학교 · 우석대 · 군산대 원광대 ·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 집

스피치 · 긴장해소 · 표현력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현대인의 인기과목에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옥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 교수 역임
- 전북대학교 토론과 민생(교양과목) 담당 교수 역임
-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주매일신문사 부사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심리상담사 • 스피치·시낭송 지도자
- 저서 “365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김제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스피치&웃음코칭(주)	익산, 논산, 김제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쉽(화), 스피치지도사(수)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코칭 등)(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	남원, 장수, 순창

상담전화: 285-6676, 010-7304-5665(주, 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해 9월에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